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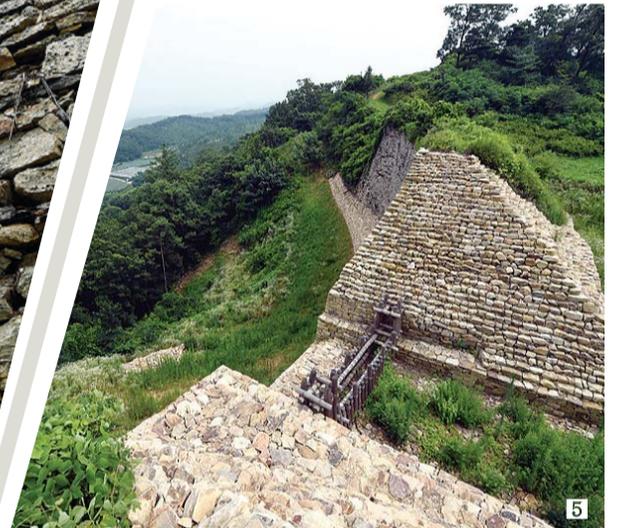


### 국방저널 기획 '성곽순례' 충북 보은군 삼년산성

5세기 말 삼국시대, 고구려는 영토 확장에 나섰고 신라 또한 약소국에서 벗어나 치열한 영토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때 신라가 쌓은 산성이 삼년산성이다. 삼년산성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오정산 정상에 있는데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석축산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직으로 까마득하게 쌓아 올린 석벽과 폭 10여m에 달하는 넓은 성벽이 처음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마저 느끼게 하는 삼년산성의 비경을 소개한 국방저널 8월호 기획기사 '성곽순례'를 요약, 소개한다. 기사 전문은 국방저널 e북에서 만날 수 있다.



## 三年山城



- 1 성의 주 출입문 역할을 하는 서문지에서 오른쪽으로 높은 곳에 있는 반원형의 서남치성이 보인다.
- 2 동문지 바깥쪽에서 바라본 성벽 모습. 보축성과 함께 쌓아져 웅장함을 자랑한다.
- 3 북문지 주변 모습. V자형의 문 원편 위쪽에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초석이 있다.
- 4 동문지와 남문지 사이 석벽에 올라 멀리 바깥쪽 성벽을 바라본 모습. 성벽 한가운데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 5 동문지 위에서 바라본 모습. 나무로 복원한 출입문이 독특하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바깥쪽에서 사다리를 이용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영토전쟁 뛰어들어 신라...철옹성을 쌓다

### 1500년 전 삼국시대 중원 요충지에 우뚝

삼년산성이 처음 축조된 때는 신라 20대 왕인 자비왕 13년(470)이며, 16년 뒤인 486년에 장정 3000여 명을 동원해 증축했다. 완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처음 축성에 3년이 걸려 삼년산성이라 부른다. 이 같은 명칭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삼국시대 당시 충북 보은의 명칭이 삼년군, 삼년산군으로 불렸기에 삼년산성이란 명칭이 붙었다고도 한다.

삼년산성은 둘레가 1680m로 당시로선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한다. 산성은 능선과 계곡을 따라 쌓은 포곡형(包谷形)으로 높이는 13~20m에 이른다. 특히 성 폭이 8~10m로 다른 산성에 비해 무척 두꺼운 데다 외벽과 내벽 사이가 흠이 아닌 돌로 채워져 견고함은 당대 최고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을 쌓은 돌들은 조선시대 성을 축조한 돌과 달리 큰 사각형 모양이 아닌 납작한 자연석이 대부분이고 크기 또한 작다. 이런 돌들을 정(井)자 모양으로 가로·세로

쌓기를 반복해 축조함으로써 상당한 견고함을 갖췄다.

삼년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성의 주 출입문 역할을 하는 서문지(西門址·서문이 있던 자리)다. 산성의 동·서·남·북 4개 문지 중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곳은 성문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적이 접근했을 때 남북으로 성벽 높은 곳에 배치된 2개의 치성(雉城)에서 활을 쏘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둘레 1680m, 높이 13~20m, 성 폭 8~10m

현재 치성이 있는 서문지 왼편은 보수공사 중이어서 웅장한 모습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오른편 쪽은 치성과 함께 성벽이 활처럼 펼쳐져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북문지는 접근하는 적들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독특한 방식으로 축조됐는데 성문 바깥쪽에 방어벽(차단벽)이 또 하나 설치돼 있다. 이 방

어벽은 조사 결과 후대에 축조된 치성으로 밝혀졌다. 성문 또한 조선 시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문지를 지나 동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얼마 가지 않아 동문지가 보인다. 이곳에는 성벽을 관통하는 수구(水口)가 있다. 안쪽을 들여다보면 까마득한 공간에 작은 빛이 보이는데 바로 벽 바깥쪽 구멍이다. 벽 두께를 실감하게 한다.

### 까마득히 높고 넓은 석벽 보노라면 경외감이...

동문지를 지나 남문지에 도착하면 비로소 성벽에 쉽게 오를 수 있고 성벽 밖 탁 트인 공간을 만나게 된다. 능선부로 이어지는 성벽에 오르면 반원형의 치성과 함께 성 안의 풍경과 서문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성에는 성벽을 따라 만든 문지 외에도 웅성 7개소와 우물터 5개소가 있다. 서문지 안쪽에 자리한 연못 아미지(蛾眉池)와 조그마한 사찰인 보은사(報恩寺)도 만날 수 있다. 글=조진섭/사진=이경원 기자